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교육요구도 분석

조진영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Analysis of Knowledge, Attitude, and Educational Needs toward Dementia in University Student

Jin-Young Cho
Dep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교육요구도를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146명의 대학생을 모집하였고 자료분석은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rson's Correlation 등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치매에 대한 지식정답률은 79.6%이었고, 태도는 평균 3.74점, 교육요구도는 평균 4.02점으로 나타났다. 지식과 태도 간($r=.23, p=.005$), 태도와 교육요구도 간($r=.61, p<.001$)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교육요구도는 기본적 일상생활동작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태도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에서 밝혀진 구체적인 교육요구도는 향후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태도, 치매, 교육요구도, 지식, 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is the descriptive survey to understand the knowledge, attitude, and education needs of the university students on the dementia and to examine their relationship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the SPSS 20.0 for Windows Program. The rate of corrective answers on dementia was shown as 79.6%, mean attitude with 3.74 points, and mean education needs with 4.02 point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ere detected between the knowledge and the attitude ($r=.23, p=.005$), and between the attitude and education needs ($r=.61, p<.001$).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required to make an effort to enhance the correct knowledge of the university students on dementia and to establish their positive attitude. The objective education needs proven by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the fundamental data for the development of customized education program for the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 Attitude, Dementia, Education, Knowledge, Student

Received 25 August 2016, Revised 1 December 2016
Accepted 20 December 2016, Published 28 Dec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Jin-Young Cho
(Dep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Email: cgy1205@jw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급격한 인구 구조의 노령화에 직면하면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비율은 2015년 13.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0년에는 40.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치매 노인인구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국내 치매노인은 2013년 57만명, 노인인구의 9.4%로 2024년에는 101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2].

치매는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 감정조절능력 등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쳐 성격변화로 인한 일상생활 및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장애를 초래하여 가족의 부양감이 커지고 개인 및 가족관계에 영향을 주어 결국 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3,4]. 또한 쉽게 흥분하거나 인격변화, 우울증 등 정신증상이 나타나 조호하는 시간의 비중이 높아져 다른 만성질환을 돌보는 것보다 훨씬 고통을 주어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있다[5]. 특히 노인의 우울증상은 삶의 질을 감소시키고 더욱 악화되면 자살시도로 이어질 수 있어 노년층의 자살률 증가에 대한 심각성은 사회적 주목과 적극적 정책개입까지 요구되고 있다[6,7].

치매의 증상 또한 대상자별 다양하여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면 치매노인이 발생되었을 때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부적절한 초기대응으로 환자 및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8]. 즉,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기와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가족 내 긍정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나 부정적 변화를 겪는 가족들이 상당하다[4,9]. 이러한 부정적 태도는 치매노인을 간호하는데 있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어 결국 개인 및 가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0,11]. 그러므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긍정적 태도를 함양하고 조호에 필요한 지속적 교육은 삶의 질을 높이고 질병 진행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12].

이와 같이 노인인구 급증과 더불어 치매 노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는 시점에서 장기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치매는 자신 뿐 아니라 부양가족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13].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데 있어 사회적 지지체계가 중요하며 이 중 가족의 역할을 강조

하고 있다[14,15]. 따라서 향후 노인부양의 주체가 대학생들이므로 정확한 지식과 긍정적 태도함양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다[16]. 또한 사회진출의 전 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은 앞으로 고령화 사회의 변화와 치매 관련 사회 문제들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향후 정책마련과 수립에 있어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학생들에게 치매 교육제공은 정확한 지식향상과 긍정적인 태도강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치매방지를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9]. 그러므로 미래건강을 책임지는 대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치매노인을 조호하는데 있어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교육내용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치매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식도와 태도를 알아보는 선행연구들은 이루어졌으나[8,9,10,13,17], 치매의 정확한 이해와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방법, 대·소변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등 지식과 기술적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교육요구도를 조사하고 필요한 교육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의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교육요구도 등을 조사하고 이들 요인들의 상관성을 파악하여 대학생에 위한 치매 조호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교육요구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교육요구도 정도를 파악한다.
-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 지식, 교육요구도와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교육요구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치매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식, 태도, 교육요구도 정도를 분석하고 각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의 표본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3으로 상관관계에 필요한 대상자 수를 산출하였고 최소 134명으로 총 160명이 참여하였으나 누락되거나 미비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최종 146명이 분석에 이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치매에 대한 지식

치매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인의 치매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였다[18]. 총 20문항으로 원인 2문항, 증상 및 진단 8문항, 예방 및 치료 6문항, 조호 4문항 등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별로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처리하여 20문항을 합산하였으며 지식 총점은 0점에서 최고 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Chronbach's $\alpha = .76$ 이었다.

2.3.2 치매에 대한 태도

치매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Cho[19]가 개발한 치매태도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정서적 태도 5문항, 행동적 태도 5문항 등 2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질문은 역문항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hronbach's $\alpha = .6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hronbach's $\alpha = .77$ 로 측정되었다.

2.3.3 치매에 대한 교육요구도

치매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해 치매환자기능상태 평가도구[18]를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18]. 총 32문항으로 인지기능장애 4문항, 행동문제 7문항, 정서문제 5문항, 기본적 일상생활 9문항, 도구적 일상생활 7문항 등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로 구성되어 있으며 [20]의 연구에서 Chronbach's $\alpha = .9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 = .95$ 로 측정되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4개 도시 소재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 11월 2일부터 2015년 11월 29일까지 자료 수집하였다. 설문지 응답 전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설문내용의 비밀보장 및 대상자의 익명성, 참여도중 연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인지시켰다. 설문지 작성시간은 20-30분 소요되었으며 설문응답이 완성한 즉시 회수하였고 146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지식, 태도, 교육요구도는 서술적 통계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 교육요구도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고 Duncan 검정으로 사후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지식, 태도, 교육요구도와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92명(63.0%), 여성 54명(37.0)으로 평균 연령은 21.95 ± 2.27 로 나타났다.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이 76명(5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봉사 및 간호경험은 없음 83명(56.8%)이, 있음 63명(43.2%)보다 많았으며 치매관련 정보경험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82명(56.2%)으로, 있다고 응답한 64명(43.8%)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정보경로는 대중매체 69명(58.5%), 수업 43명(36.4%), 친구 및 가족 6명(5.1%) 등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족력은 없음 95명(65.1%), 있음 37명(25.3%). 모름 14명(9.6%) 순이었으며 관심도는 보통이 58명(39.8%)으

로 가장 많았고, 많음과 없음이 동일하게 각 44명(30.1%)으로 나타났다. 치매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6명(45.2%)으로 가장 많았고, 모름 56명(38.4%),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24명(16.4%) 순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 교육요구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정도는 노인봉사 및 간호경험($t=2.77, p=.006$), 가족력($F=3.37, p=.037$), 관심도($F=8.31,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노인봉사 및 간호경험이 있는 집단, 가족력이 없거나 모르는 집단, 관심도가 보통인 집단에서 지식정도가 높았다.

태도 정도는 정보경험($t=2.33, p=.021$), 가족력($F=16.39, p<.001$), 관심도($F=26.43, p<.001$), 교육 필요성($F=8.84,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정보경험이

있는 집단, 가족력이 있거나 모른다는 집단, 관심도가 많은 집단, 교육 필요성이 있는 집단의 태도가 더 높았다.

교육요구도 정도는 가족력($F=21.45, p<.001$), 관심도($F=12.97,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가족력이 있거나 모른다는 집단, 관심도가 많은 집단의 교육요구도가 더 높았다<Table 1>.

3.3 지식정답률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정답률은 20점 만점 중 14.85 ± 3.56 점($.76\pm .19$), 전체 정답률이 79.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정답률을 보면 치매원인 영역(85.7%), 조호 영역(82.5%), 예방 및 치료 영역(75.9%), 증상 및 진단 영역(7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Knowledge, Attitude, and Educational Need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Knowledge			Attitude			Educational needs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92 (63.0)	14.89±3.43	.15	.877	3.71±.64	-1.03	.304	3.99±.56	-.96	.338
	Female	54 (37.0)	14.80±3.81			3.81±.50			4.08±.55		
Age (year)	>20 ^a	8 (5.5)	13.50±5.86	.55	.644	4.16±.39	1.91	.130	4.24±.39	.53	.659
	20-22 ^b	86 (58.9)	15.09±3.30			3.67±.54			3.99±.54		
	23-25 ^c	43 (29.5)	14.65±3.37			3.80±.71			4.04±.60		
	≥26	9 (6.1)	14.77±4.57			3.79±.48			4.06±.60		
Majorit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76 (52.1)	15.22±3.52	.67	.510	3.83±.64	1.60	.204	4.00±.54	.10	.898
	sciences and engineering	55 (37.7)	14.60±3.60			3.64±.50			4.04±.58		
	Arts and physical education	15 (10.3)	14.44±3.38			3.72±.59			4.05±.57		
Service or care Experience for the elder	Yes	63 (43.2)	15.76±3.29	2.77	.006	3.85±.58	1.80	.074	4.08±.50	.99	.324
	No	83 (56.8)	14.16±3.61			3.67±.59			3.98±.59		
Information Experience	Yes	64 (43.8)	15.21±3.52	1.08	.278	3.87±.59	2.33	.021	4.10±.52	1.43	.153
	No	82 (56.2)	14.57±3.58			3.64±.58			3.96±.57		
Information route	class	43 (36.4)	15.30±3.75	.64	.528	3.87±.58	2.17	.118	4.16±.59	2.17	.117
	public media	69 (58.5)	14.81±3.25			3.74±.60			4.00±.49		
	friends or family	6 (5.1)	14.38±3.93			3.59±.58			3.90±.61		
Family history	Yes ^a	37 (25.3)	13.59±4.34	3.37	.037	4.15±.56	16.39	.000***	4.42±.56	21.45	.000***
	No ^b	95 (65.1)	15.21±3.22			3.56±.54			3.83±.46		a,c>b
	Unknown ^c	14 (9.6)	15.78±2.69			3.91±.43			4.27±.44		
Interest in dementia	High ^a	44 (30.1)	14.09±4.49	8.31	.000***	4.18±.55	26.43	.000***	4.35±.56	12.97	.000***
	Middle ^b	58 (39.8)	16.25±2.32			3.67±.49			3.94±.46		a>b,c
	None ^c	44 (30.1)	13.77±2.32			3.40±.50			3.82±.52		
Education need	Yes ^a	66 (45.2)	14.86±3.84	3.02	.052	3.95±.60	8.84	.000***	4.14±.57	2.89	.059
	No ^b	24 (16.4)	13.37±3.93			3.44±.58			3.96±.65		
	Unknown ^c	56 (38.4)	15.48±2.84			3.63±.51			3.91±.46		

p<.01, *p<.001

<Table 2>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about dementia (N=146)

Item	N	%
Causes	120.0	85.7
Symptoms and Diagnosis	103.8	74.1
Prevention and Treatment	106.2	75.9
Care	115.5	82.5
Total (M±SD)	14.85±3.56 (.76±.19)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79.6	

3.4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태도, 교육요구도

치매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74±.5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정서적 태도는 3.64±.70, 행동적 태도는 3.85±.66로 행동적 태도가 정서적 태도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치매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4.02±.55로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기본적 일상생활 동작 4.09±.61로 가장 높았으며, 인지장애 4.02±.55와 행동문제 4.02±.67, 도구적 일상생활동작 3.97±.68, 정서문제 3.91±.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Attitude, and Educational Needs on dementia (N=146)

Item	M±SD
Attitude	3.74±.59
Emotional Attitude	3.64±.70
Behavioral Attitude	3.85±.66
Educational Needs	4.02±.55
Cognitive impairment	4.02±.55
Behavioral problem	4.02±.67
Emotional problem	3.91±.68
Activities of Daily Living	4.09±.61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3.97±.68

3.5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교육요구도 관계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 교육요구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식은 태도($r=.23, p=.005$)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도는 교육요구도($r=.61,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식과 교육요구도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Knowledge, Attitude, and Educational Needs (N=146)

Variable	Knowledge	Attitude	Educational Needs
	r (p)	r (p)	r (p)
Knowledge	1	.23 (.005)	.15 (.055)
Attitude		1	.61 (.000***)
Educational Needs			1

p<.01, *p<.001

4. 논의

치매는 장기적인 관리와 관심이 요구되는 질환으로 치매노인 발생률의 급증은 개인 및 가족관계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향후 노인부양의 주체이자 미래의 주부양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대학생들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긍정적인 태도 함양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교육요구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구체적인 교육접근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으로 다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대학생의 전체 치매에 대한 지식 점수는 평균 14.85점 (20점 만점), 정답률은 79.6%로 중간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Oh[21]의 사이버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된 지식점수는 평균 10.22점 (16점 만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결과를 보였고, Kim 등[17]의 연구에서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치매지식 점수가 12.03점 (20점 만점)으로 중간이상의 결과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평소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치매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전략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쉽게 찾아보고 휴대하기 편리한 포켓용 소책자를 제작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 전·후 지식정도가 현저히 차이가 나타난 결과로 볼 때[13] 대학생에게 맞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되며 프로그램 적용 후 차이를 검증하는 재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지식 항목 중 증상 및 진단 영역이 가장 낮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치매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문항이다. 그러나 조사결과 정보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고 전문가를 통한 지식습득이 아닌 주로 대중매체가 가장 높은 정보원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관련된 것으로 생각한다.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습득은 접근이 용이할 수 있으나 치매지식수준까지 향상되었다고 낙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22]. 그러나 전문가 집단과 연계하여 스마트러닝을 활용한 교육 개발은 학생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며 제한된 틀에서 벗어나 수준별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23,24]. 따라서 SNS를 활용한 스마트러닝 개발은 정확한 지식향상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

치매에 대한 지식정도는 노인봉사 및 간호경험이 있는 집단, 가족력이 없거나 모르는 집단, 관심도가 보통인 집단에서 지식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및 조호경험이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로[25,26,27] 볼 때 노인봉사 및 시설기관에서 직접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높이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학생의 참여활동은 사회공동체적 경험제공과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중요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28]. 한편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치매가족력이 있는 집단, 관심도가 많은 집단의 지식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반대로 차이가 있다[17]. 따라서 치매가족력이 있는 집단의 지식정도를 제조사하고 특히 잘못된 지식정보는 즉각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진행은 일부 지역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추후 연구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재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치매에 대한 태도는 평균 3.74점 (5점 만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행동적 태도가 정서적 태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Oh[21]의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63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고, Lee 등[8]의 연구에서 비보건계열 학생의 태도를 분석한 결과 3.91점 (5점 환산)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정서적 측면보다는 행동적 측면에서 더 긍정적 태도를 보인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10,19]. 즉, 치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방법과 정보 등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행동적

태도보다 치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감정표현인 정서적 태도가 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서적 태도확립을 위해서는 교육적으로 인성접근과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에 대한 정서적인 부양의식이 높을수록 정서적, 행동적 치매태도가 더 긍정적인 결과로[10] 볼 때 치매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포함되어야 하며 치매를 돌봄으로 느끼는 어려움을 표현하고 함께 공유하고 해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치매에 대한 태도는 정보경험이 있을수록, 가족력이 없는 집단보다 그 외 집단, 관심도가 많을수록, 교육필요성이 있을수록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리치료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8] 치매정보 습득 유무에 따라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간호학과 학생의 치매 교육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25],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 지식과 관심도가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29].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치매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대중매체를 이용한 전문적인 교육전달이 치매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증진하는데 용이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치매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평균 4.02점 (5점 만점)으로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다. 이 중 기본적 일상생활동작이 가장 높았으며 인지장애, 행동문제,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 정서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족력이 있거나 모른다는 집단, 관심도가 많을수록 교육요구도가 높았다. 식사, 목욕, 개인위생, 옷 입기, 대·소변 가리기, 화장실 사용, 이동 및 보행 등과 같은 기본적 일상생활동작은 치매노인을 돌보는데 일차적인 보호자가 가족이므로 기능 저하 시 의존성이 높아져 부양감이 더욱 증가될 수 있다.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교육프로그램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치매부양기술 정보영역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볼 때[30] 치매노인의 일상생활을 효과적으로 돕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치매노인을 조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적 접근 및 집단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관찰 및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비디오 제작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제공이 교육요구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고려가 필요한데 선행연구에서[30] 부양가족들이 선호하는 장소는 노인복지관으로 매달 1회 교육을 요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각 대학의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 및 홍보를 통해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전문인력을 통해 직접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는 치매전문기관 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교육요구도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치매에 대한 지식은 태도와 순상관관계가 있고 태도는 교육요구도와 순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지식이 증가하면 긍정적 태도가 높아지고 긍정적 태도를 갖출수록 교육요구도가 높아진다는 결과이다. 치매에 대한 지식이 긍정적 태도와 순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31]에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혔다. 따라서 대학생을 위한 치매 전문지식 제공과 긍정적 태도를 강화시키는 것이 결국 교육요구도를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치매에 대한 교육요구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제공이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기본적 일상생활에 대한 교육요구가 가장 높았던 점을 반영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동영상으로 제작한 비디오 및 휴대용 소책자 개발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기관에서는 대학생이 정보습득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인터넷사이트 개발과 동영상 시청, 상담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지식과 교육요구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지식이 태도와 관련이 있고, 특히 태도는 교육요구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정확한 지식함양이 교육요구도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 교육 전·후 지식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교육요구도와의 관계를 재검증할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자들을 일부 지역의 대학생들을 임의 선정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확대·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 대학생들을 위한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태도, 교육요구도를 측정하는 보다 정확한 도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5. 결론 및 제언

치매는 개인과 국가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로 노인부양의 주체이자 사회진출의 전 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치매관련 다양한 정보 및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지식이 치매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확립하고 교육요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치매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기본적 일상생활동작이 가장 요구되는 영역으로 이를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과 같은 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대학생들의 기본적 일상생활동작의 교육중재 전·후 지식과 태도, 교육요구도 차이에 대한 분석 2) 지역 및 연구대상자를 확대한 대학생의 지역별 교육요구도 차이분석 3) 치매에 대한 교육요구도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 조사연구 등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15 statistics for elders [Internet]. Seoul: Statistics Korea; 2015 Sep 24 [updated 2015 Sep 24; cited 2016 Apr 14].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48565&pageNo=14&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 [2] Ministry of Health & Welfare, Dementia Strategyinside of Life. A press release before the cabinet meeting. Seoul: Korea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14.
- [3] S. Andrén, S. Elmstahl, "Family caregivers' subjective experiences of satisfaction in dementia care: aspects of burden, subjective health and sense of coherence".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Vol. 19, No. 2, pp.157-168, 2005.
- [4] B. Keenan, C. Jenkins, L. Ginesi, "Preventing and diagnosing dementia". *Nursing Times*, Vol. 112, No. 26, pp.22-25, 2016.
- [5] N. O. Cho, "Study on family caregiving burden scale

- of dementia korea(FCBSD-K)".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 12, No. 4, pp.629-640, 2000.
- [6] M. A. Lee, "The effects of social quality on suicide ideation of korean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Vol. 13, No. 3, pp.271-281, 2015.
- [7] J. H. Lim, "The relationship among depressive symptoms and chronic diseases in the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6, pp.481-490, 2014.
- [8] M. S. Lee, M. C. Kim, S. K. Kim, "Study on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and physical therapists towards seniors with dementi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Vol. 2, No. 2, pp.21-29, 2014.
- [9] B. I. Kwon,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toward the aged with dementia in Chung Cheong Buk -Do".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2008.
- [10] I. J. Park, W. S. Choi, A. H. Kim, "A study on the university students' attitude toward dementia". Research of Parent Education, Vol. 3, No. 2, pp.27-49, 2006.
- [11] K. A. Kim, K. A. KIM, M. R. Sung, "A study on the level of dementia-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 among care workers-focusing on the care workers who got education on dementia in seoul dementia center".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Vol. 6, pp.23-51, 2011.
- [12] M. Perry, I. Drašković, P. Lucassen, M. Vernooij-Dassen, T. van Achterberg, M. O. Rikkert, "Effects of educational interventions on primary dementia care: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Vol. 26, No. 1, pp.1-11, 2011.
- [13] S. J. Park, K. S. Park, Y. J. Kim, "The effects of geriatric nursing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attitude, perception toward dementia and dementia polic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7, pp.4467-4477, 2015.
- [14] K. H. Yang, M. G. Jeong, "Mediating Effects According to Family Type in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and Material Factors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7, pp.437-444, 2015.
- [15] H. G. Koo, "A study on proposal to develop senior related policies : convergence approach of both age norm and hoping activit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4, pp.101-110, 2015.
- [16] M. S. Lee, S. N. Yang, "Effect of Social Work Student's Attitude,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 Senior Citize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 8, pp.265-273, 2012.
- [17] S. K. Kim, M. C. Kim, M. S. Lee, "The knowledge difference in students and physical therapist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ealth Sciences, Vol. 11, No. 1, pp.31-39, 2014.
- [18] Seoul Metropolitan Center for dementia. 2010 Guidelines for dementia management project in seoul.
- [19] H. O. Cho, "A study on public's knowledge of and attitude towards dementia".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1999.
- [20] E. H. Ha, J. Y. Cho, "Analysis of knowledge about, attitude toward, and educational needs for dementia in certified caregiver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1, pp.108-118, 2016.
- [21] B. Y. Oh, "A study of knowledge and attitude, influenced factors on dementia in cyber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Welfare and Counselling Education, Vol. 5, No. 1, pp.111-127, 2016.
- [22] M. H. Yong, C. U. Yoo, Y. A. Yang, "Comparison of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ward dementia between health-related and non-health-related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Physical Therapy Science, Vol. 27, pp.3641-3643, 2015.
- [23] J. H. Kang, " Study on Utilizing SNS to Vitalize Smart Learn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9 No. 5, pp.265-274, 2011.
- [24] K. S. Noh, S. H. Ju, J. T. Jung, "An Exploratory Study on Concept and Realization Conditions of Smart Learn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Vol. 9, No. 2, pp.79-88, 2011.

- [25] A. Scerri, C. Scerri, "Nursing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s dementia- A questionnaire survey". Nurse Education Today, Vol. 33, No. 9, pp.962-968, 2013.
- [26] M. H. Yong, E. J. Kim, Y. A. Yang, "A study on the knowledge of families with demented elderly persons for dementia".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ccupation Therapy Policy for Aged Industry, Vol. 2, No. 2, pp.41-50, 2010.
- [27] E. H. Hwang, B. K. Kim, H. R. Kim, "A Study on Dementia-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s in Adolescents". Korean Academic Society of Rehabilitation Nursing, Vol. 16, No. 2, pp.133-140, 2013.
- [28] C. G. Kim, M. R. Lim, "Development directions of voluntarism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2, No. 2, pp.57-65, 2011.
- [29] S. H. Kim, O. H. Ahn, D. H. Park, "Nursing students and social welfar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dementi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3, pp. 111-117, 2015.
- [30] S. Y. Kim, "A study on education programs for senile dementia family".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0.
- [31] E. H. Hwang, B. Y. Kim, H. R. Kim, "A Study on Dementia-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s i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Vol. 16, No. 2, pp.133-140, 2013.

조진영(Cho, Jin Young)



- 2011년 2월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7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성인, 간호교육, 응급, 시뮬레이션

· E-Mail : cjl205@jwu.ac.kr